

대통령의 요리사, 고향 영암에 '천상 영암멋집' 오픈

천상현 셰프의 중식당, 왕인유적지에 무화과 등 재료로 미식 관광 시작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 셰프가 20일 고향 영암에 중식당 '천상현의 천상 영암멋집'을 열었다. 영암 삼호읍 출신인 천 셰프는 1998~2018년 청와대 총괄조리팀장을 맡았고,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의 식탁을 책임지며 국가 의전 만찬을 총괄했다.

이후 서울 양재동과 경기 가평에 음식점 '천상현의 천상'을 개점해 외식업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고 있다.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개점한 영암멋집은 고향 사랑과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천 셰프가, 영암군의 '관광거점 특화음식점 육성사업'에 선정돼 선보인 세 번째 음식점이다.

월출산,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역사공원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과 대통령 요리사의 미식 콘텐츠가 결합한 영암형 미식 관광 브랜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천 셰프의 영암멋집은 영암 무화과·장어·고구마 등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고품격 중식 메뉴를 내놓고 있다.

특히, 가게 한 쪽에는 '청와대 추억 공간'이 마련돼 대통령의 요리사 시절 사용했던 국가 의전 소품 등을 전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음식점 방문객에게 대통령 요리사가 손맛으로 빚어낸 최고의 요리를 대접하는 동시에, 불거리와 이야기거리도 함께 즐기는 복합 미식 관광을 체험할 수 있다.

천 대표는 이달 29일 '식품외식산업발전 유공 정부포상' 행사에서 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포장을 받을 예정이다.

영암군은 정부포상이 영암멋집 개점과 상승효과를 내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영암군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영암멋집을 월출산·왕인박사유적지·상대포역사공원 등 주요 관광지 및 연결한 미식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광 기반시설 조성, 방문객 만족도 및 경제효과 분석 등을 병행해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지난 20일 HD현대삼호 김해을시공과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이 회사인변에서 건조 중인 LNG운반선에 승선해 작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HD현대삼호 방문한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 "화재 예방 등 안전 관리 철저" 당부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이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를 방문해 작업현장을 살피고 화재 예방 등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HD현대삼호는 지난 20일 주영국 신임 전남소방본부장이 HD현대삼호 영암 분사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주영국 본부장은 야드투어에서 현장을 둘러본 후, 건조 중인 LNG운반선에 승선해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시찰을 마친 주영국 본부장은 "전남소방본부가 이처럼 우수한 기술력과 고도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춘 HD현대삼호와 함께한다면 화재 등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재을 사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현장 최우선 가치"라며 "체계적이고 빈틈 없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남소방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무재해 작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완도군, 대한민국 SNS 어워드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채널별 특성 반영한 트렌디한 콘텐츠 제작 높이 평가

완도군이 지난 16일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지난해 이어 기초 지자체 부문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의회정책아카데미가 후원하는 SNS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이다.

심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기관·기업의 SNS 운영 성과를 전문가, 사용자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완도군은 군민 SNS 기자단 운영을 통한 소식 전달, 온·오프라인 이벤트 추진, 재밌고 유익한 숏폼 영상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으로 팔로워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인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사용자 평가에서 "관광지 정보도 귀에 속속, 재밌어서 매일 쟁겨 보게 된다", "완도 사는 친구가 있어 팔로우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완도 정보를 공유한다" 등 총 1,700여 명의 사용자들이 대한민국 SNS 어워드 누리집에 완도군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

완도군 SNS 채널(회방 완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스토리, 채널, 유튜브 등 5개의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각 채널의 성격과 이용자 특성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완도군 공식 SNS 채널의 총 이용자 수



는 올해 10월 기준 약 5만 명으로 전년 대비 4만 명보다 1만 명이 늘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전략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군민과 관광객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보성군 조성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이어져 채원농원·소래정사, 사랑의 쌀 기탁으로 지역에 온기 전해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17일, 지역 내에서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채원농원(대표 김재원)과 소래정사(주지 청화스님)가 각각 백미(20kg) 70포와 25포를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돼, 조성면 내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채원농원은 7년째 이웃돕기 쌀 기탁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나눔의 모범이 되고 있다.

채원농원 김재원 대표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계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소래정사 청화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자비의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인숙 조성면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채원농원과 소래정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성면은 지역의 종교단체, 기업, 개인 후원자 등과 함께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주원에농협, 고향사랑기부제로 담양군에 따뜻한 나눔

담양군은 17일 광주원에농협(조합장 정일기)이 임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담양군청에서 열렸으며, 정일기 조합장을 비롯해 한상봉 상임이사, 김기평 이사(무정면), 조희진 감사(대전면) 등이 참석했다. 군에서는 정철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주원에농협은 담양군 관내 다수의 농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육묘장

운영과 농산물 유통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과 협력 기반을 꾸준히 다져오고 있다.

정일기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농업·농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제25회 곡성심청

어린이 대축제

2025. 10. 23. - 26. 곡성심진강기차마을